



내 사랑은 혹시 여기로 불시착?

사랑은 불시착 뺨치는 스위스 스포츠를 소개한다

사랑꾼 마음 설레게 할 풍경들

지친 마음 위로해줄 들꽃과 호수

심지어 흘러 서 있어도 외롭지 않을만한 풍경들

극 중 윤세리가 여행 중 느꼈을만한 설렘과 위로를 전해주는 스위스의 풍경을 소개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초록빛 목초지대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는 내가 윤세리고, 내가 리정혁이다.

1. 체르마트(Zermatt)의 5 개 호숫길

체르마트에 펼쳐진 하이킹로를 걷다 보면 마터호른(Matterhorn)이 등장하는 야생화 꽃밭이나 산정호수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5 개 호숫길(5-Seenweg)에서는 꽃이 가득 피어난 들판을 걸다가 마터호른이 물 위로 반사되는 산정호수 다섯 개를 만날 수 있다. 블라우헤르드(Blauherd)에서 시작하는 이 하이킹 트레일은 슈텔리제(Stellisee), 그린디제(Grindjisee), 그룬제(Grünsee), 모스이제(Moosjisee), 라이제(Leisee) 호수로 향한다.

다섯 개 호수는 각각 고유의 형태, 색채, 특성이 있다. 라이제는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고 재미있게 노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룬제 호수는 비교적 거친 풍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눈잣나무가 바위와 모래를 붙잡고 있는 형상이다. 그린디제 호숫가는 희귀한 꽃들로 가득하다.

찾아가기

체르마트에서 푸니쿨러를 타고 수벡가(Sunnegga) 역까지 간 뒤, 곤돌라를 갈아타고 블라우헤르드까지 갈 수 있다. 5 개 호숫길 트레일을 따라 약 2 시간 30 분 정도 하이킹을 하면 수벡가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푸니쿨러를 타고 체르마트로 돌아오면 된다.

2. 벅기스(Weggis)

리기(Rigi)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있는 마을, 벅기스는 루체른 호숫가에 자리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타고 찾아갈 수 있다. 마을을 돌아보거나, 호숫가를 산책하기 좋다. 물론, 리기산을 오르거나 내려오는 길에 둘러보아도 좋다.

1871 년, 유럽 최초의 산악 철도 리기 바넨(Rigi Bahnen)은 매력적인 리기산 정상으로의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비츠나우(Vitznau)와 아트-골다우(Arth-Goldau)에서 출발해 리기 쿨름(Rigi Kulm)과 정상의 호텔까지 올라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 철도가 운행 중이다. 벅기스(Weggis)에서 공중 케이블카를 타면 리기-칼트바드(Rigi-Kaltbad)까지 바로 갈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13 개의 호수, 알프스 깊은 곳, 저 멀리 블랙 포레스트(Black Forest)의 모습까지 시야에 들어와 보는 이를 기쁘게 한다.

찾아가기

갈 때는 루체른(Luzern)에서 유람선을 타고 비츠나우(Vitznau)까지 간 뒤, 리기행 기차를 타고 정상에 오른다. 리기 정상에서 짧은 하이킹으로, 혹은 기차로 리기 칼트바드 피르스트(Rigi Kaltbad-First)까지 내려온 뒤, 케이블카를 타고 벅기스에 내린다. 벅기스에서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으로 다시 돌아온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리기에서의 여정 전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드라이 바이에렌(Drei Weieren)

생갈렌(St. Gallen)에 있는 드라이 바이에렌은 ‘세 개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드라이 바이에렌에 오르면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다. 푸른 언덕 너머 한적한 생갈렌 도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드라이 바이에렌은 본래 수도원에서 쓰이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못으로, 아르누보 양식의 수영장이 있어 로컬들이 즐겨 찾는다.

생갈렌 파노라마 투어는 사랑스러운 9km의 산책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는 고지대 능선을 따라가는 루트다. 난이도가 낮은 이 트레일은 하겐(Hagen)역에서 시작해 초록 들판을 지나고 숲을 지나 프로이덴베르그(Freudenberg)까지 이어진다. 트레일의 끝 즈음에 다다르면 세 개의 호수라는 뜻의 드라이 바이에렌(Drei Weieren)의 기막힌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아르 누보 양식의 수영장에서 상쾌한 수영을 즐기며 구시가지의 로맨틱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찾아가기

파노라마 투어 전 코스를 하이킹하고자 한다면 생갈렌 중앙역에서 로컬 기차로 12분 거리에 있는 생갈렌 하겐 역으로 찾아가면 된다. 하이킹을 원치 않고, 드라이 바이에렌 지역만 찾아보고 싶다면, 구시가지 수도원 뒤편에 있는 뮐레그(Mühlegg) 푸니쿨러 역을 찾아가서, 푸니쿨러에 오르면 드라이 바이에렌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4. 로르샤흐(Rorschach)

스위스 동북부, 보덴제(Bodensee) 호숫가에 자리한 마을이다. 그림 같은 항구가 있는 마을이라 더 로맨틱하다. 호숫가를 거니는 것만으로도 리정혁이 연주하던 피아노 선율이 귀속에 아른거릴 것이다.

아펜첼러란트(Appenzellerland)의 완만한 언덕들 사이, 호수의 넓게 트인 지역에 로르샤흐(Rorschach)가 자리하며, 이곳은 라틴사람들의 숨씨가 남아 있는 그림 같은 항구 마을이다. 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로, 947년 이미 로르샤흐는 시장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중세 시대에는 호수의 남쪽 면의 가장 중요한 교역 장소로 성장하였다. 이 시절의 번영은 지역의 심장부엔 위풍당당한 저택과 ‘콘하우스(Kornhaus)’, 로르샤흐의 상징과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물 저장기 등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다.

찾아가기

생갈렌(St. Gallen) 중앙역에서 기차로 로르샤흐 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된다. 취리히에서도 직행 열차가 운행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5. 슈토오스(Stoos)

슈토오스 마을은 루체른 호수 지역, 해발 1,300m 평원 양지바른 곳에 아름답게 자리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푸니쿨러를 타고 산 위로 오를 수 있다. 야생화 가득 핀 초록 들판과 햇살 부서지는 루체른 호수의 풍경이 평화를 선사한다.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에 있는 슈토오스 산에는 능선 코스인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 하이킹 코스가 있다. 스위스에서도 이 능선 코스는 아름답고 클래식한 파노라마 코스로 소문이 자자하다. 로컬들에 사이에서 릿지하이킹으로 슈토스 마을 프론알프(Fronalp Stock)에 올랐을 때 보는 루체른 호수의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정평이 나 있다. 열 개가 넘는 호수의 풍경과 중앙 스위스의 셀 수 없는



알프스 봉우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슈토오스에서 내려다보이는 중앙 스위스의 알프스 파노라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루체른 근교의 슈토오스를 찾아간 뒤, 마을을 조금 걸으면 나오는 체어리프트를 타고 클링에슈톡(Klingenstock)에 내리면 프론알프슈톡까지 이어지는 능선 하이킹 코스가 나온다. 약 2시간 30분간의 황홀한 하이킹이 끝나면 다시 체어리프트를 타고 슈토오스로 내려오면 된다.

찾아가기

루체른에서 기차로 슈비츠(Schwyz)까지 간 뒤,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퓨니쿨러로 갈아타면 슈토오스 마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마을에서 클링에슈톡이나 프론알프슈톡 체어리프트 역까지 걸어간 뒤, 리프트를 이용해 클링에슈톡 정상이나 프론알프슈톡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슈토오스 마을은 슈비츠뿐만 아니라, 모르샤흐(Morschach)에서 케이블카로도 찾아갈 수 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슈토오스 여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 알멘드후벨(Allmendhubel)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콘, 아이거(Eiger), 뮌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세 명봉의 환상적인 뷰가 펼쳐지는 마을, 뮌렌(Mürren)에서 퓨니쿨러를 타면 알멘드후벨에 도착할 수 있다. 꽃길을 따라 거닐며 그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조금 긴 하이킹을 원한다면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의 그뤼취알프(Grütschalp)부터 알멘드후벨까지 하이킹을 해볼 수 있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구간이다. 라우터브룬넨 계곡 위를 따라가는 고지대 트레일은 그뤼취알프에서 아름다운 숲을 지나 알프스 들판을 건넌다.

가파른 절벽과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의 만년설이 특히 놀라운 풍경을 선사한다. 트레일은 습지를 지나고 야생화, 블루베리 덩굴, 알파인 로즈로 가득 피어난 들판을 건너 뮌렌 마을 위에 있는 알멘드후벨까지 이어진다. 알멘드 후벨에는 짧게 산책할 수 있는 꽃길도 마련되어 있다.

찾아가기

알멘드후벨은 뮌렌에서 퓨니쿨러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다. 뮌렌까지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에서 기차로 라우터브룬넨까지 간다. 라우터브룬넨에서 버스를 타고 슈테헬베르크(Stechelberg)에서 내린다. 케이블카를 타고 뮌렌에 내린다.

7. 필라투스 쿨름(Pilatus Kulm)

루체른(Luzern) 시내에서도 우뚝 솟은 산봉우리 하나가 눈에 띄는데, 바로 필라투스다. 맑은 날에는 73개의 알프스 봉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낭만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정상 위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별이 빛나는 알프스 밤을 지새워 봐도 좋다.

중앙 스위스를 상징하는 바위산, 필라투스(Pilatus)로 향하는 방법은 색다르다. “골든 라운드 트립(Golden Round Trip)”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로, 유람선, 톱니바퀴 열차, 케이블카, 곤돌라를 모두 이용해 여행을 하는 것이다. 조난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었던 용의 전설을 품고 있는 필라투스는 루체른(Luzern) 시내에서 무척 가까워 반일 여정도 가능한 까닭에 관광객들에게는 물론, 루체른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산이다. 게다가 알프나흐슈타트(Alpnachstad)부터 운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깎아지른 절벽과 숲, 들판을 지나 필라투스 정상까지 스릴 넘치는 풍경을 선사한다. 최고 경사도가 48 도나 된다.

필라투스(Pilatus)는 고지대 돌산이기 때문에, 정상에 있는 동굴 산책로의 바위에서 솟아난 아담한 야생화를 보기에 좋다. 필라투스에 오르면 20 분 만에 오버하우프트(Oberhaupt)를 간단히 둘러볼 수 있으며, 또한 15 분 내에 에젤(Esel)로 오를 수 있다. 45 분간의 하이킹을 하면 방문객들은 가장 먼 봉우리인 톰리시호른(Tomlishorn)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에 오르면 장엄한 360 도 파노라마 산악 경치가 눈 앞에 펼쳐진다. 루체른 호수의 조망도 한눈에 들어온다.

찾아가기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타고 알프나흐슈타트(Alpnachstad)에 도착해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필라투스 정상에 오른다(단 5-10 월만 운행). 내려올 때는 정상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프랙뮌테그(Fräkmüntegg)에 내려 곤돌라로 갈아타고 크리엔스(Kriens)까지 간 다음 버스를 타고 루체른 시내로 돌아갈 수 있다. 반대 방법도 가능하다.

8. 베르그후이스 요흐파스 엔겔베르크(Bärghuis Jochpass Engelberg)

엔겔베르크(Engelberg)에 있는 요흐파스 고개는 중부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킹 중 하나로 꼽힌다. 티틀리스(Titlis)의 산세와 거울같이 맑은 트뤼프제(Trübsee) 호수, 사파이어 빛의 엥슈틀렌(Engstlen) 호수 풍경을 선사한다. 중간중간 만나는 산장도 반가운 풍경이다.

4 개 호수 하이킹의 출발 지점은 멜흐제 프루트(Melchsee-Frutt)의 케이블카 역이다. 이곳에서부터 산과 호수의 환상적인 세계가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 루트는 멜흐제를 따라, 멜흐제 프루트의 그림 같은 예배당을 지나 탄넨(Tannen) 호수까지 이어진다. 이 호수는 4 개의 호수 중 유일한 인공 호수이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탄알프(Tannalp)에서부터 내리막길을 따라 질푸른 엥슈틀렌 호수까지 이어진다. 이곳에서 요흐파스로 향하는 오르막길이 시작한다. 파스의 정상에서부터 계곡 밑의 경관으로 수고로움을 잊게 된다. 또 다른 사면에서는 웅장한 티틀리스 산맥이 떠오른다. 이 내리막길은 생동감 넘치는 알프스 지역의 목초지를 가로질러 4 개 호수 여행이 끝나는 곳인 수정같이 맑은 트뤼프 호수까지 이어진다. 최근 트뤼프제 호수는 인스타그램을 필두로 무료 보트를 타고 찍는 인생샷이 인기를 끌고 있다.

찾아가기

멜흐제 프루트에서 하이킹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루체른(Luzern)에서 기차로 자멘(Samen)까지 간 뒤, 버스로 갈아타고 슈톡알프(Stöckalp)로 간 뒤, 케이블카를 타면 멜흐제-프루트에 도착한다. 하이킹 대신 트뤼프제만 둘러보고 싶다면, 루체른에서 기차로 엔겔베르크(Engelberg)까지 간 뒤, 티틀리스행 케이블카를 타고 트뤼프제 역에서 내리면 된다.

9. 빈(Binn)의 매써제(Mässersee) 호수

빈탈은 모든 것이 놀라운 곳이다. 산악 마을에 위치한 세계 수준의 상을 수상한 맛집과 태곳적 자연 풍광에 자리한 세계 수준의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다.

빈탈(Binntal) 계곡에 자리한 매써제 호수는 빈 자연공원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꼽힌다. 7 시간 정도 소요되는 하이킹에 도전해 보아도 좋다. 마니보덴(Maniboden), 메써제(Mässersee), 그리고



가이스파드제(Geisspfadsee) 호수는 공원의 가장 인상 깊은 풍경에 속한다. 7 시간이 소요되는 하이킹이 부담스럽다면 마니보덴과 메써제만 방문한 뒤에, 쉐레(Schäre)에서 광산으로, 그리고 임펠드(Imfeld)로 가는 것이 좋다. 이 하이킹 코스는 1,000m의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산악인에게 적합하다.

찾아가기

브리그(Brig)에서 기차와 버스로 빈(Binn)의 팰트(Fäld)까지 간 뒤, 하이킹으로 호수를 찾아갈 수 있다.

10. 외쉬넨제(Oeschinensee) 호수

기차로 찾아갈 수 있는 칸데르슈텍(Kandersteg)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매력 넘치는 산악 호수, 외쉬넨제(Oeschinensee)를 찾아갈 수 있다. 혹은 케이블카를 이용해 클렌탈(Klental) 계곡의 호흐튀를리(Hohtürli)를 경유하는 하이킹 코스에 나서 보아도 좋다. 산세에 둘러싸인 외쉬넨제 호수의 에메랄드빛이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 낸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인용 곤돌라가 돌덴호른(Doldenhorn) 전망이 펼쳐지는 외쉬넨제를 오르내렸다. 오늘날 컬러풀하고 모던한 곤돌라 객차가 80명의 승객을 한 번에 싣고 오른다. 25분 정도 걸으면 호수에 닿을 수 있으며 전기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짜릿한 여름철 터보건 활강장이 케이블카 정상 역 바로 옆에 있다. 산악 호수로 상쾌한 여정 후에 신나는 터보건을 체험해보면 좋을 것이다.

찾아가기

베른(Bern)에서 기차로 칸데르슈텍까지 간 뒤, 케이블카를 타면 외쉬넨제 호수에 갈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